베트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전략

2025년 베트남 GDP·FDI 호조의 시사점

베트남 2025년 GDP YoY +8.02%, FDI 집행액 YoY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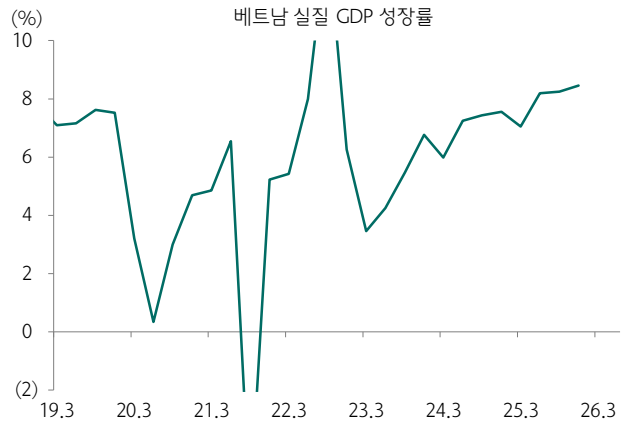
베트남의 2025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YoY +8.46%로, 팬데믹 당시 기저효과에 따른 수치 왜곡 구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8% 달성을 위해서는 4/4분기 8.4% 내외 성장률이 필요했는데, 실제 분기 고성장이 확인되면서 2025년 연간 성장률 역시 YoY +8.02%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했다.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수출과 고정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0.6%)과 건설업(+8.9%)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내수소비 및 관광 활성화가 동반되면서 서비스업(+8.8%)의 개선도 뚜렷했다.

이번 성장률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고정투자다. 정부가 연간 성장률 8%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고, 총리 또한 연말 집행 가속화를 강하게 독려해온 만큼 해당 기조가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핵심 확인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4/4분기 고정투자 확대가 확인된 점은 연말 공공투자 집행 가속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정부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및 재정 집행을 실질적으로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집행 의지가 확인된 만큼 2026년에는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26년 성장률 목표를 10%로 큰 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의 정책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6년은 북남고속도로, 닌투안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 착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 집행 확대가 성장률의 하방을 지지할 전망이다.

한편 성장률과 더불어 경기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FDI 역시 견조했다. 2025년 FDI 유치액은 384억 달러로 YoY +0.5% 증가에 그쳤으나, 유치액보다 더 중요한 집행액은 276억 달러로 YoY +9% 증가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FDI 집행액의 높은 증가율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자금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구축·확장하는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집행액의 83%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베트남이 핵심 생산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제조업 가동률 개선과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 경제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 1. 베트남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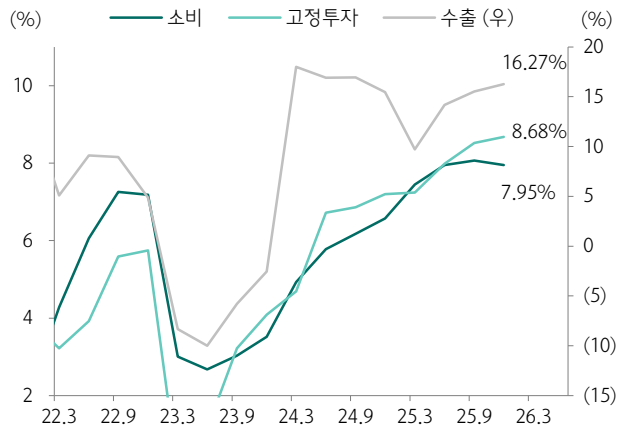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베트남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3. 베트남 GDP 성장률 : 지출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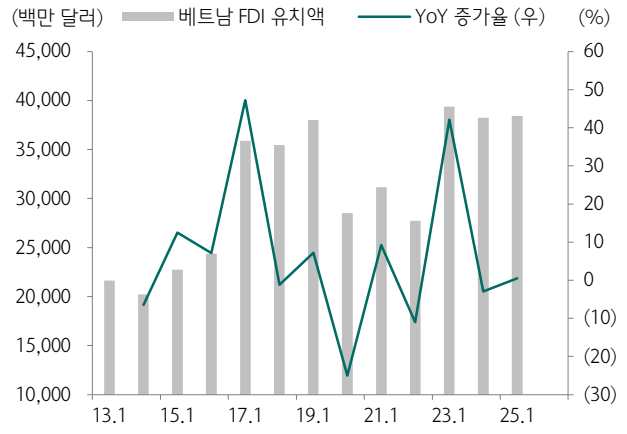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4. 베트남 GDP 성장률 : 산업별

	2025 Q3	2025 Q4		2025 Q3	2025 Q4
농임어업	4.2	4.0	도소매업	8.6	10.8
광업	5.9	0.5	운수·창고업	11.8	10.8
제조업	9.2	10.7	숙박업	10.2	10.0
전기,가스 공급업	10.4	8.3	금융, 보험업	7.9	8.2
건설업	8.9	9.0	부동산업	5.2	4.5
서비스업	8.4	8.8	교육업	7.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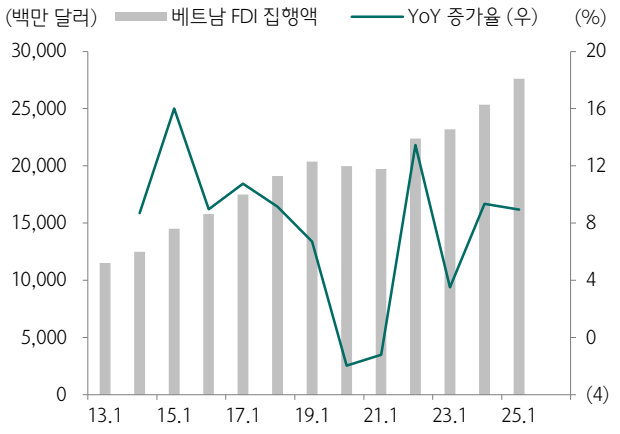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5. 베트남 FDI 유치액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6. 베트남 FDI 집행액



자료: CEIC, 하나증권